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박 용 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진로포부는 성인기 삶에서 중요한 직업적 삶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많은 진로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아왔다. 진로포부 발달의 성차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진로 발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성 발현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포부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한 후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성차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사회적 지지,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과 진로포부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인자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있어 집단자존감의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보다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사이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이 성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성차에 따라 이들 각 변인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독립된 개인에 대한 평가 또는 지각뿐만 아니라 개인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평가 또는 지각이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차에 따른 관계 모형의 차이는 진로포부 형성의 심리적 기제가 성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 진로포부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 세계와 사회적 가치와 질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진로발달 대한 성차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비록 지난 1세기에 비해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보수와 낮은 지위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관습적인 사회적 편견에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Tinklin, Croxford, Ducklin, & Frame, 2005). 2007년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제 취업률은 여성(65.36%)이 남성(71.29%)보다 낮았으며 20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률이 2000년에 비해 그다지 늘지 않았으며 20대 여성의 취업자수는 209만 명으로 2000년(218만 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한겨레 신문, 2008. 6. 26.). 이처럼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진로포부의 형성 과정 및 성차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으로서 성공적인 성인기 삶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포부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O'Brien, Gray, Toura & Eigenbrode, 1996). 진로포부 성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과거 여성들이 성차별주의, 지각된 차별,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직업 선택을 하였고(Domenico, & Jones, 2006), 남성에 비해 직업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etz, 1994; Betz & Fitzgerald,

1987).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포부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에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지각하며(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종종 교육적, 직업적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낮은 지위와 낮은 급여의 직업으로 여성들의 포부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Betz et al., 1990; Betz, 1994). 비록 최근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포부에 있어서 성역할에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Francis, 2002; Mendez & Crawford, 2002)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미래 직업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헌신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지각하고 있다(Watson, Quatman, & Elder, 2002).

현재까지 진로 연구에 있어서의 성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 중의 하나는 진로 행동 및 발달의 성차에 대한 현상 설명 및 차이 규명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심리적 기제가 진로 발달에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또한 여성과 남성이라는 개인차가 진로포부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성이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탐색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진로포부 형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다양한 태도나 의사결정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및 가족, 구조화된 노동 시장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에 의해 개인의 선택은 제약받고 실현되는 것이다(Shanahan & Elder, 2001; Shanahan & Hofer, 2001).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의 심리 내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심리 내적 특성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로포부 형성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Gottfredson(1991)은 진로포부의 발달이 다양한 직업 대안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들이 어떠한 것인지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직업에 대한 지각된 접근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요소들이 이러한 타협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기능적 자원은 개인이 목표로 한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게 하는 반면에 진로 장벽과 같은 역기능적 자원은 개인의 진입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높은 수준의 진로포부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진로포부나 성취동기 발달에 있어서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며(Farmer, 1985; Rooney, 1983), 부모의 지지가 친구들의 계획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고등학생들의 진로포부를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지지하고 있다(Swell & Howser, 1975). 또한 부모들의 격려 및 지지 지각에 있어서 중요한 성차가 나타나고 이는 곧 지위 포부 및 성취과정 상의 차이를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lexander

& Eckland, 1974).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과 함께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던 이론적 개념은 자아개념으로 많은 진로 연구자들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진로포부 형성 및 발달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다(Gottfredson, 1981; Super, 1984; Farmer, 1985). 이러한 이론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진로연구에 있어서 진로포부와 자아개념을 개념적으로 연결한 첫 번째 변인은 자존감이다. 개인의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인지구성의 일부인 까닭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가치와 인지적 균형을 이루는 보다 높은 가치의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높은 자존감 즉 긍정적인 자기 평가가 바람직한 진로포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Korman(1967)은 그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자아와 직업 역할의 적합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증가한 여성은 고등 교육과 전일제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에 자존감이 감소한 여성은 시간제나 무직을 선호하였다(Stein, Newcombe & Bentler, 199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진로포부를 형성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존감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며 평가라고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또는 집단적 정체감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판단이라는 다른 유형의 자존감에 대한 사회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Jennifer Katz, Thomas E., Joiner Jr. & Paul Kwon, 2002). Crocker와 Luhtanen(1990)은 사회정체감이론에서 정체감을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존감 역시 개인자존감(personal self-esteem)과 집단자존감(collective self-esteem)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자존감이 독립적인 자신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인데 반해 집단자존감은 자신의 속한 집단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Luhtanen과 Crocker(1992)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나 평가만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단순히 부분적인 관점만을 제공할 뿐이며,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자존감만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 민족이나 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 받는 집단 구성원들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집단자존감은 진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심리 내적 변인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던 개인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통해 자기 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 평가를 선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하려고 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개인의 자존감 증진의 경향성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동일시하는 집단의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를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정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며(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더욱 긍정적인 특성을 부여하고(Marsh, 1986; Pelharm & Swann, 1989)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확신한다(Baumgardner, 1990; Cambell, 1990).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Abram, 1992).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좋고 내집단의 성원들이 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으며 내집단 성원들의 활동 결과를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는 내집단 편파 경향성을 가진다(Tajfel & Turner, 1986). Crocker, Thompson, McGraw와 Ingerman 등(1987)은 낮은 자존감보다는 높은 자존감이 자아증진의 한 가지 방식으로 내집단 편파를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Luhtanen과 Crocker(1991)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외부집단에 대한 비교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개인은 자존감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보다 못한 집단과의 하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개인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평가 즉 자신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긍정적인 집단적 자존감을 유지 또는 증진하려 할 것이다. 즉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인 집단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한편 집단자존감은 스트레스 지각, 학업 적응 및 진로문제와 같이 진로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Cassidy, O'Corner, Howe, & Warden, 2004; Liang & Fassinger, 2008). Cassidy 등(2004)은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성의 경우 지각된 차별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개인자존감과 인종 자존감(집단자존감과 유사한)의 매개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Bettencourt, Charlton, Eubanks와 Kernahan 등(1999)은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집단자존감의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집단자존감의 발달이 대학생활의 학업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Liang과 Fassinger(2008)는 미국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와 집단자존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진로 연구에 있어서 개인자존감과 함께 집단자존감에 대한 고려는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집단자존감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및 평가로 사회적 계층에 따른 진로포부 발달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진로포부 연구에 있어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성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용할 수 있다.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생의 초기에 획득되는 성유형이나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이 진로포부 형성 시 경험하게 되는 타협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속한 집단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개인의 직업 선택 및 포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집단자존감이 낮은 개인 즉 개인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개인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회 지각이 떨어져 자신의 진로포부 형성에 제한받게 될 것이다.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이 개인의 내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 제안한 두 가지 자아개념(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 둘 모두를 고려한 자존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자존감은 진로포부 성차의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성차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분되어 고려되지 않았던 자존감을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 자존감과 미래의 직업 획득 및 직업만족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진로포부 간에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 Gottfredson의 진로포부 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성차에 따른 자존감, 진로포부, 환경 변인들 간의 관계 모형 검증을 통해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심리적 기제의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매개하는 관계모형을 가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검증된 관

계모형이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서 성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55명(49.1%)과 여학생 161명(50.9%)으로 총 31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7세에서 28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20.8(2.01)세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5명(26.9%), 2학년 137명(43.4%), 3학년 43명(13.6%), 4학년 50명(15.8%), 불응답자 1명(3%)이며 전공별 분포는 문과대학 73명(22.9%), 사회과학대학 67명(21.1%), 상경대학 64명(20.5%), 이·공과대학 56명(17.4%), 기타대학 47명(15.1%), 불응답자가 9명(3%)을 차지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 진로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연구자 윤리 규정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

리가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개인자존감 측정도구

개인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자신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Rosenberg의 **개인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거의 그렇다’(4점)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존중 정도의 차아 승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ogenberg(1965)는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대학생집단에서 .85에서 .88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8이었다.

집단자존감 측정 도구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정도를 측정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된 김혜숙(1994)의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기초로 자신이 속한 일반적인 사회적 집단을 자신이 속하는 성 집단으로 수정하여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하여 느끼는 집단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김혜숙(1994)이 Luthanen과 Croker(1990)가 개발한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총 4개의 하위 척도(소속감, 사적 집단자존감, 공적 집단자존감, 정체성)로 구성되어 있다. 7점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7점) 척도 상에 각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집단자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4개의 하위 요인 중 2개(사적 집단자존감과 공적 집단자존감)의 하위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김혜숙(1994)의 경우 자신이 속한 일반적인 사회적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측정하여 한국형 집단자아존중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81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적 집단자존감의 내적 신뢰도는 .69, 공적 집단자존감의 신뢰도는 .67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로써 제공 받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 자원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말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지지 척도 중에서 **MOS 사회적지지 조사**(*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에서 사용된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cale(MOS-SS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OS-SSS는 Sherbourne과 Stewart(1991)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로 5가지 하위요인(정서적/정보적지지, 우호적지지, 현실적지지, 애정적지지, 관계적지지)의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의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bourne과 Stewart(1991)는 **MOS 사회적 지지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97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측정 도구

대학생들의 진로포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 안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하도록 O'Brien(1992)이 고안한 **진로포부척도**(*The Career Aspiration Scale: CAS*)를 최수욱(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AS는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자기진로분야에서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높은 진로포부 점수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분야에서 더 높은 진로 목표 수준 갖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수욱(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가 .7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집단자존감, 개인자존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시행한 후 AMOS 7.0을 사용한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간접 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또한 성차에 따른 각 변인 간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라 각 집단의 관계 모형을 비교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 영역에서의 포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만 여학생의 경우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지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

Holmbeck(1997)이 제안한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 집단자존감이 개인자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고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완전 매개 효과를 검증했을 때 모형 적합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31, 316) = 54.731, p = .005$, RMSEA = .049 (90% CI: .027 -.070), IFI = .965, TLI = .948, CFI = .964 개인자존감이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 $\beta = .487, p < .01$ 집단자존감이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25, p < .01$ (그림 1). 대안모형으로써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hi^2(29, 316) = 51.048, p = .007$, RMSEA = .049 (90% CI: .026 -.071), IFI = .967, TLI = .948, CFI = .967, 부분매개 모형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만 유의하였을

표 1. 여학생과 남학생의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전체 (n=316)	여학생 (n=161)				남학생 (n=154)								
	1	2	3	4	1	2	3	4					
1	1				1				1				
2	.43***	1			.31**	1			.57**	1			
3	.34***	.40***	1		.24**	.35**	1		.44**	.47**	1		
4	.36***	.29***	.25***	1	.36**	.23**	.10	1	.35**	.38**	.39**	1	
평균	63.53	31.01	34.55	35.30	65.20	31.02	34.38	36.06	61.81	31.08	34.70	35.72	
편차	10.84	4.50	4.64	5.07	10.14	4.39	4.41	5.00	11.32	4.55	4.88	5.16	

주. 1 = 사회적지지, 2 = 개인자존감, 3 = 집단자존감, 4 = 진로포부.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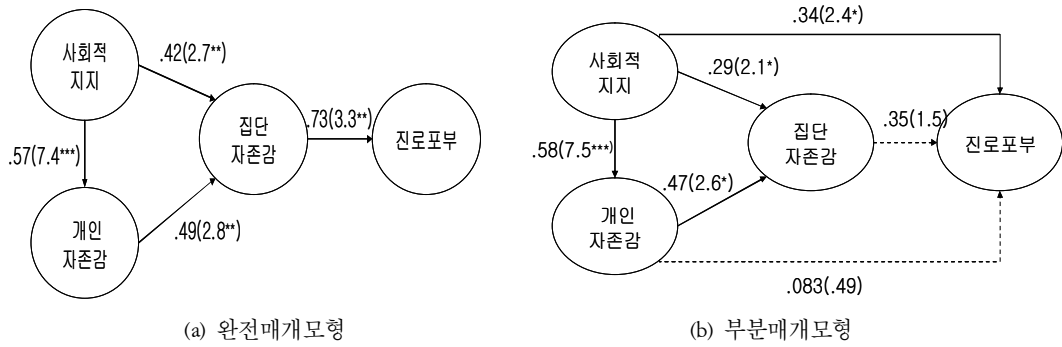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 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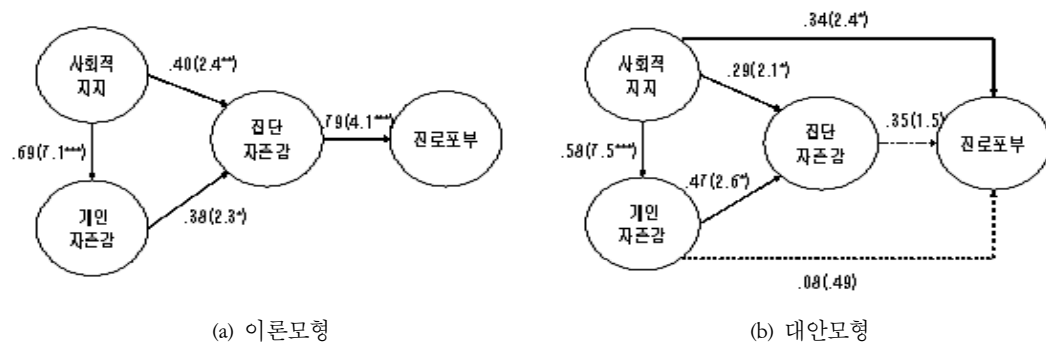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 이론모형과 대안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 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뿐만 $\beta = .335, p < .05$, 집단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와 개인자존감에서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또한 χ^2 차이검증 결과, 부분매개 모형의 설명량과 완전매개 모형의 설명량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의 설명량,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도 지수 및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 모형이 보

표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매개변인		χ^2	df	$\Delta\chi^2(df)$	IFI	TLI	CFI	RMSEA (90%CI)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	완전매개	54.731	31		.965	.948	.964	.049 (.027 - .070)
	부분매개	51.048	29	3.683	.967	.948	.967	.049 (.026 - .071)

* $p < .05$

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수나 중간 정도의 표본 수에서도 간접효과나 직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절차(bootstrapping procedures)를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이 지지되었다.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beta = 0.305$, 개인자존감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beta = 0.202$ 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포부 변량의 약 51%가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성차 모형 검증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각 집단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equivalence)을 검정한 후 각 개별 집단에 대한 관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이론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성 집단에 따라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에 서로 다른 관계 모형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두 번째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동일한 형태의 모형 구조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연구 모형의 각 경로계수 유의미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남학생의 경우 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31, 155) = 39.394, p = .143, RMSEA = .042$ 대안 모형의 적합도는 이론 모형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29, 155) = 38.476, p = .112, RMSEA = .046(90\% CI: .000 - .082), IFI = .979, TLI = .966, CFI = .978$,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와 개인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χ^2 차이 검증 결과 이론 모형과 수정 모형의 설명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로계수의 유의성, 모형 적합도 및 모형의 설명량을 고려했을 때 이론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여학생의 경우 모형 집단자존감의 관측변수인 측정변수들이 집단자존감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자존감의 각 관측변수를 사적 집단자존감과 공적 집단자존감으로 구분하여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사적 집단자

표 3. 남학생의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집단		χ^2	df	$\Delta\chi^2(df)$	IFI	TLI	CFI	RMSEA (90%CI)
남학생	이론모형	39.394	31		.981	.972	.981	.042(.000-.077)
	대안모형	38.476	29	.448	.979	.966	.978	.046(.000-.08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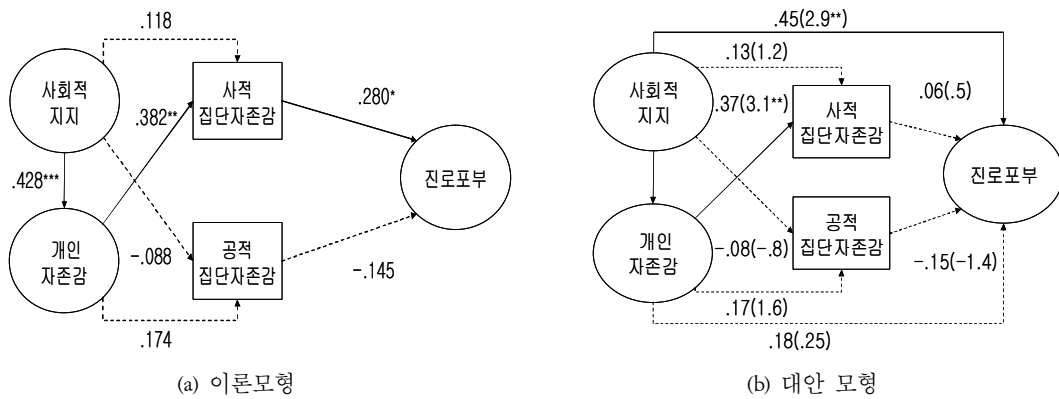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 이론모형과 대안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 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존감과 공적 집단자존감의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30, 161) = 55.547, p = .003, RMSEA = .073$ (90% CI: .042 - .103), IFI = .898, TLI = .837, CFI = .891, 개인자존감에서 공적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 공적 집단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공적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경로들은 유의하였다(그림 3).

대안 모형으로서 개인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4), $\chi^2(28, 161) = 37.443, p = .109, RMSEA = .046$ (90% CI: .000 - .081), IFI = .963, TLI = .935, CFI = .960, 완전매개

와 동일하게 개인자존감에서 공적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 공적 집단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공적 집단자존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개인자존감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 경로와 개인자존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였다(그림 3). 또한 두 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설명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량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대안모형이 보다 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안모형의 경우 사적 집단자존감이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 경로 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사적 집단자존감의 역

표 4. 여학생의 이론모형과 대안모형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집단		χ^2	df	$\Delta\chi^2(df)$	IFI	TLI	CFI	RMSEA (90%CI)
여학생	이론모형	55.547.	30		.898	.837	.891	.073(.000-.103)
	대안모형	38.476	29	17.071	.979	.966	.978	.046(.000-.082)

* $p < .05$

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제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고자 하는 많은 진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들과 심리 내적 요인들 간의 관계성 탐색 및 진로포부 형성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특히 진로포부의 성차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현상학적인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환경적 변인과 소속된 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심리 내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성차에 따라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으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개인 스스로에 대한 가치 평가, 개인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검증해 보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에 성차가 있는 지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요인인 사회적 지지, 개인자존감, 집단자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간접 영향도 미쳤다. 즉 환경적 변인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매개변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주변타인들의 지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변 타인들의 지지는 독립된 자아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게 중요한 주변 타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 영역에 대한 높은 포부 수준을 갖도록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높은 진로포부 수준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가 집단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주변 타인으로부터의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개인의 집단자존감은 증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진된 집단자존감은 개인의 이후 직무 수행 및 진로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 변인인 진로포부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후 보다 바람직한 진로행동 및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자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있어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자존감이 완전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가치롭게 지각하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높은 수준의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 특히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가치 평가의 관계성이 진로포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존감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회정체성 이론의 주장(Tajfel & Turner, 1986)을 지지하는 것으로 초기 형성된 성 유형에 대한 사회화보다는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지각이 진로포부 형성에 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개인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Marsh, 1986; Pelham & Swann, 1989)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진로 영역에서 성별에 대한 제약 요인 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로포부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진로포부 형성 과정의 심리적 기제의 차이를 밝히고자 전체 집단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검증결과 흥미롭게도 성차에 따라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 모형 구조가 다를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는 이론적 모형과 동일한 구조의 관계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

증된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주고 개인자존감을 거쳐 사적 집단자존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사적 집단자존감이 진로포부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여성의 경우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집단자존감이라는 자신이 속한 성 집단과 관련된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지각이 여성의 진로 목표 설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이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성차에 따른 관계 모형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남녀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성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며 여성의 특성이 의존적, 감정적, 수동적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남성으로서의 특성은 능력, 합리성, 창의성, 객관성 등으로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특성으로 묘사된다(김지경, 2002). 이와 관련된 한국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세선(1991)의 연구에서는 남성적 특성으로 ‘과학적인’, ‘믿을만한’, ‘지배적인’, ‘용감한’ 등이 여성적인 특질로는 ‘부끄러운’, ‘잘난 체 하는’, ‘까다로운’, ‘우울한’, ‘복종적인’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여성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여성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여성이라는 성 집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가진 성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성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려고 한다(Tajfel & Turner, 1979).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긍정적 가치를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지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비교는 자신의 자존감 유지 및 증진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보다는 개인 스스로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 전략(Individualization strategy)을 사용한다(Doosje, Spears & Koomen, 1995b).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한 개인은 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과는 다른 개인의 차별적 속성을 보다 부각하여 지각한다(Doosje, Ellemers & Spears, 1995). 따라서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제약 및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에 노출되어 있는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소속된 성 집단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보다 중요하게 지각하기 보다는 명문대학, 경제적 지위 등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지각이 진로 영역에서의 목표 설정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면에 남학생은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집단자존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은 남학생일수록 자신이 속한 성 집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한 가지의 가능한 설명은 귀인의 모호함이다. 여성은 수세기 동안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비록 그 정도의 차이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의 현존하고 있다. 여성의 차별 경험은 자신들의 성공이나 실패 원인 귀인을 애매하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승진이나 취직에 대한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 할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귀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귀인의 모호성은 이후 진로 영역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부정적 피드백을 편견으로 귀인하지 않았으며(Ruggiero & Taylor, 1997) 실제 몸무게와 관련된 고용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28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만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Roehling, Roehling & Pichler, 2007). 이러한 귀인의 모호성 때문에 여성의 경우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 또는 지각이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 영역에서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즉 스스로 지각하는 자아상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남성에게 비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시사해 준다. 진로포부는 이후 진로 선택이나 직무 만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동기 차원의 변인으로서 진로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초기 청년기와 청소년기의 내담자에게 보

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연구에 있어서 성차에 따른 진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남성과는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들에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진로포부 형성 과정이 다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진로포부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진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의 지지가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존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밝힘으로써 내담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가 내담자의 긍정적인 진로포부 형성을 방해 할 수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진로 문제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내적 요인 중 개인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 설정 특히 진로 관련 행동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선행 경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 경험을 통해 획득되어 지는 것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인 자기효능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평가인 자존감과 더불어 보다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함께 중요한 진로 장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은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개인의 진로포부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장벽에 진로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와 종류로서 성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다른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에 따른 진로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성 특성을 고려한 진로장벽 측정을 고려하고 이러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성과 심리적 기제의 특성을 밝힘으로서 여성의 진로포부 형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또한 진로포부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 장벽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사회적 계층, 소득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적 변인들과 개인의 심리내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자존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의 소속된 성 집단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평가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여성이라는 집단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여성의 관계 모형에 있어서 집단자존감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구현함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속 대학, 사회경제적 지위 등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집단에 대한 집단자존감과 함께 일반적인 집단자

존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도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피험자 50%이상이 1, 2학년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경 (2002).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1-13.
-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 지위가 집단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53-64.
- 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89-301,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 노충래 (2000) 로젠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 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1.
- 박세선 (1991). 한국 중학생과 대학생의 성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숙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옥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형(2008. 6. 26.). 20대 여성 거침없는 사회 진출? 천만에! 한겨레 신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brams, D., & Hogg, M. A. (1990).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New York: Springer-Verlag.
- Atkinson, J. (1978). The mainsprings of achievement-oriented activity. Atkinson J. Raynor J. (Eds.), *Personality, motivation, and achievement* (pp. 11-39). New York: Halsted.
- Alexander, K. L. & Eckland, B. K. (1974).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63-172.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62-1072.
- Betz, N. E. (1994) Self-concept theory i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11-32.
- Betz, N. E. (1994).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 237-26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 Bettencourt, B. A., Charlton, K., Eubanks, J., Kernahan, C., & Fuller, B. (1999) Development of collective self-esteem among students: Predicting adjustment to college.

-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1(3), 213-222.
- Campbell, J. P. (1990). Modeling the performance prediction problem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M.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Vol. 1, pp. 687-732).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assidy, C., O'Connor, R.C., Howe, C.,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29-339.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60-67.
- Crocker, J., Thompson, L., McGraw, M., Ingerman, C. (1987). Downward comparison, prejudice, and evaluations of others: effects of self-esteem and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07-016.
- Dubin, R.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 131-142.
- Domenico, M. D. & Jones, K. H. (2006). Career aspirations of wo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22(2). 130-139.
- Doosje, B., Spears, R., & Koomen, W. (1995b). When bad isn't all bad: Strategic use of sample information in generalization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42-655.
- Doosje, B., Ellemers, N. & Spears, R. (1995). Perceived intragroup variability as a function of group status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10-436.
- Farmer, H.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Francis, B. (2002). Is the future really female?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gender for 14-16 year olds' career choice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5, 75-88.
- Gottfredson, L.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 545-579.
- Katz, J. Thomas, E. J., & Kwon Paul. (2002). Membership in a devalued social group and emotional well-being: developing a model of personal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and group socialization. *Sex Role*, 47, 419-431.
- Korman, A. K. (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1, 65-67.
- Liang, C. T., & Fassinger, R. E. (2008). The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for Asian American experiencing racism-related stress: A test of moderator and mediator hypothesi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1), 19-28.
- Luhtanen, R., & Crocker, J. (1991). Self-esteem and intergroup comparisons: Toward a theory of collective self-esteem, in J. Suls &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211-234. Hillsdale, NJ: Erlbaum.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1-318.
- Marsh, H. W. (1986) Global self 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self 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1236.
- Mendez, L. M. R., & Crawford, K. M. (2002). Gender-role stereotyping and career aspirations: A comparison of gifted early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3, 96-107.
- O'Brien, K. M., Gray, M.P., Tourajd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 (Char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1996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Roehling, M. V., Roehling, P. V. & Pichler,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and perceived weight-related employment discrimination: The role of sex and r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1), 300-318.
- Rooney, G. (1983).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life roles of worker, students, and homemaker for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324-342.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ewell, W., & Hauser, 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Shanahan, M. J., & Elder, G. H., Jr. (2001). *History, agency, and the life course*. In Mortimer, J. T., Gembeck, M. J. & Holmes, M.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439-465.
- Sherbourne, C. D. & Stewart, A. L.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2(6), 705-714.
- Shrout, E. P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in, J. A., Newcomb, M. D., & Bentler, P. M. (1990). the relative influence of vocational

- behavior and family involvement on self-esteem: longitudinal analyses of young adult women and 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320-338.
- Super, D. E. (1963).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1-16).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rg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 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L.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gago: Nelson-Hall.
- Tinklin, T, Croxford, L, Ducklin, A, & Frame. (2005). Gender and attitudes to work and family roles: The views of young people at the millennium. *Gender and Education*, 17(2), 129-142.
- Watson, C. M., Quatman, T., & Edler, E. (2002). Career aspirations of adolescent girls: Effects of achievement level, grade, and single-sex school environment. *Sex Roles*, 46, 323-335.
- 1 차원고접수 : 2008. 8. 11.
심사통과접수 : 2008. 9. 1.
최종원고접수 : 2008. 9. 25.

The Sex Difference in Relationship Model among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 The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and Personal Self-Esteem

Yongdoo Park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on the link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spiration. Also,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development of career aspiration differs by gender. A total of 316 undergraduate students(155 male and 161 female) completed measures of social support, personal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model differed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ull mediation model fit of collective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 was better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fit. Next, in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aspiration,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 esteem was significant. Lastly, when the model of social support, individual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 was test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the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differ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n the individual's social group as well as the individual influenced to career aspiration,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al factors. Also, the gender-difference of relationship model indicates that it might be different from men and women in psychological mechanism in the career aspiration formation.

Key words : collective self-esteem, personal self-esteem., career aspiration, social support